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여대생의 두피건강신념과 두피관리행동

이서희¹, 임연실², 전해정^{2*}

¹성결대학교 뷰티디자인학부 강사, ²성결대학교 뷰티디자인학부 교수

A study on differences in scalp health beliefs and scalp care behaviors according to the lifestyles of female college students

Soe-hee Lee¹, Yeon-Sil Lim², Hae Jung Chon^{2*}

¹Lecturer, Dept of Beauty Design, Sungkyul University

²Professor, Dept of Beauty Design, Sungkyu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건강한 두피관리행동의 증진을 위해 건강신념모델에 기초한 여대생의 라이프스타일을 유형으로 나누어 두피관리행동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이다. 연구를 위하여 서울, 경기지역의 여대생 총 534명을 대상으로 2020년 3월 18일에서 2020년 4월 7일까지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두피건강관리 건강신념수준의 차이는 인지된 유익성과 인지된 장애성, 자기효능감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두피관리행동 차이에 대한 결과로는 사회지향성향, 유행추구성향, 경제지향성향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두피건강신념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정보와 교육 프로그램의 개설 및 라이프스타일의 유형별 두피관리제품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주제어 : 여대생, 건강신념모델, 라이프스타일, 두피관리행동, 사회지향성향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calp care behavior by dividing the lifestyle of female college students based on the health belief model into detailed types to promote healthy scalp care behavior. For the study was conducted with a total of 534 people college student in Seoul, Gyeonggi Province from 18 March 2020 to 7 April 2020. As a result, the difference in the level of belief in scalp health care according to lifestyle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perceived benefit, perceived disability, and self-efficacy. In addition, the results of the difference in scalp care behavior according to lifestyle were found to be high in the order of social orientation, fashion pursuit, and economic orientation. Through this study, it is thought that it is necessary to open information and education programs that can raise the level of belief in scalp health and to develop scalp care products for each lifestyle type.

Key Words : Female university student, Health belief model, Lifestyle, Scalp care behavior, Social orientation

1. 서론

최근 현대사회에서는 웰빙(well-being)과 웰니스(Well-ness) 그리고 루키즘(lookism)등의 사회트렌드

로 인하여 미(美)의 기준이 오직 외모를 가꾸는 것이 아닌 건강을 기반으로 하는 아름다움을 지향하고 있으며, 특히 아름다운 모발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두피 건강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1]. 그 중 헤어미용 분

*This article is extended and excerpted from the master's thesis at sungkyul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 Hae-Jung Chon (hjchons@hanmail.net)

Received September 4, 2021

Revised October 26, 2021

Accepted November 20, 2021

Published November 28, 2021

야에 편중되어 있던 염색, 탈색, 펄, 커트 등의 외적 헤어스타일관심에서 건강한 모발과 두피에 관심으로 바뀌면서 두피관리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두피관리하는 두피 호흡을 방해하거나 생리기능 저하를 유발시킬 수 있는 노폐물을 제거하고, 각질과 피지로 인한 두피 문제를 개선하여 탈모를 예방하여 두피를 건강하게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탈모와 비듬, 가려움증 등의 두피 문제가 야기되었으나, 현대에는 외적 아름다움에 관심이 많은 젊은 연령층에서도 두피 손상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2,3]. 두피 손상의 원인으로는 헤어스타일을 위한 염색, 탈색, 펄, 등과 같은 반복된 시술이나 잘못된 샴푸 방법, 불규칙적인 수면 생활과 무리한 다이어트로 인한 영양의 불균형 등과 같은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4]. 이러한 두피 손상 원인으로 인한 불건강한 두피의 상태는 중년층으로까지 이어져 두피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건강한 두피 상태를 유지, 증진시키기 위하여 모발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올바른 두피 건강관리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20대의 여대생은 살아가는 방식이 매우 다양하며, 이러한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건강한 두피를 위한 두피 건강관리행동 역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두피건강관리행동은 두피 손상 등의 질병을 통제하기 위한 다양한 건강신념에 따르며, 건강신념은 건강행위가 일어나기 전의 마음상태로서 두피건강행위를 추구하는 행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5]. 그러므로 여대생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두피건강신념은 두피건강관리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6].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두피와 관련된 기존의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변화정(2010)[7]의 연구와, 권용선(2012)[8], 이금옥(2017)[9]의 연구들로 주로 여대생의 모발과 두피의 상태만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것으로,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여대생의 두피건강신념 및 두피관리행동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건강행동 연구에서 사용되는 건강신념모델을 적용한 라이프스타일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이들의 두피관리행동연구를 통하여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주요 건강신념을 규명하여, 두피관리방법과 올바른 두피관리지침을 개발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라이프스타일의 개념

라이프스타일 용어는 독일의 사회학자에 의해 '지위'라는 개념 연구에 의하여 만들어졌으며[10], 심리학, 경제학, 사회학 등에서 일반적인 사회 계층과 인간 행동간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11]. 라이프스타일은 생활양식으로서 광범위하고 집합적인 의미에서의 개인이나, 집단의 특징적인 생활방식으로 가치, 태도, 흥미와 의견, 그리고 외형적 행동들로 구성되는 통합체를 의미한다[12]. 라이프스타일은 소비자행동을 구분하여 시장세분화의 기준과 사회적 동향을 파악하는 것에 그 가치가 있으며[10], 라이프스타일과 궁극적인 인간의 가치 유형을 실증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소비자행동예측을 가능하게 한다[13]. 또한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가치의 중요성이 추구하는 관심이나 활동, 의견 등을 결정할 수 있다.

2.2 라이프스타일의 분류 및 특징

라이프스타일의 유형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다. 류유현(2008)[14]과, 최나홍(2012)[15], 주은령(2015)[1]은 라이프스타일의 유형을 건강지향형, 유행지향형, 경제지향형, 사회지향형 등으로 분류하였다.

사회지향성향은 사교적이며 사회적 요인이 외적 요인보다 많은 영향을 받는 스타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사교적인 목적이 가장 큰 부류로서 적극적인 참여성을 보이며, 주로 어린 연령층으로 구성되어 있다[16]. 유행추구성향은 과시성이 있는 생활방식으로 합리적 소비보다 미적 요소나 타인에게 보여 지는 소비에 관심을 두고 있다[17]. 양재명(2019)[18]은 유행추구성향은 젊은 세대에서 잘 나타나고 있으며 과시성이 높고 자신의 미적 요소를 보여주기 위한 소비경향을 가진 스타일이라고 하였다. 경제지향성향은 계획성 있는 구매행동을 위하여 충동구매를 하지 않으며[18], 자신의 예산안에서 물건구매를 하거나, 소비를 위하여 정보를 비교하는 라이프스타일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2.3 두피건강신념

건강신념모델(Health Belief Model: HBM)은 건강행위를, 개인의 질병에 관한 위험 인식 정도에 따른 행

동 변화로서 어느 정도 질병을 줄일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어서 사람들의 병에 대한 반응을 관찰하는 모델이다[19]. 건강신념모델에서 '신념'이란 주관적인 본인의 생각이나 느낌을 의미하며, 의사결정에 있어서 신념의 역할은 매우 강조되고 있다[20]. 또한 건강신념은 건강행위가 일어나기 전의 심리상태로써 건강관리행동에 대한 동기 유발을 높아지게 할 수 있다[21].

건강신념 모델의 구성요소는 인지된 유익성, 인지된 장애성, 자기효능감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인지된 유익성이란, 건강신념모델의 구성 요소로서 자신이 어떠한 행동을 하면서 얻게 되는 이익을 인지하게 되는 정도를 의미하며, 특정 행동으로 인해 이익이 된다고 생각되면 불편하더라도 그 행동을 수행하는 요소이다[22].

인지된 장애성이란 행동적 수행에 있어서 재정적인 비용, 예방활동의 불편함, 통증과 같은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장애를 의미하는 것으로[23], 인지된 장애가 높을수록 건강 행위의 빈도수는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24].

자기효능감은 기대하는 결과를 산출하기 위하여 성공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자신에 대한 믿음과 스스로에 대한 신념으로서, 필요한 행동을 수행하기 위해 신념을 바탕으로 자신의 감정 및 사고를 통제하여 실행에 옮기는 모습을 나타내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25].

2.4 두피관리행동

두피관리행동의 개념은 두피 질환의 최소화나 예방하려는 목적을 위해 개인이 두피 건강을 유지 및 증진하기 위하여 실천하는 행동을 의미한다[2].

두피관리행동의 두피 인식은 두피 상태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샴푸행동으로는 샴푸행동의 패턴과 행동방법에 대한 것을 의미하며, 두피 전문관리행동은 주기적으로 미용실이나 두피관리전문샵을 방문하여 관리를 받는 행동을 의미한다[26]. 이러한 두피관리행동은 정확한 두피 인식과 두피와 모발의 성장 및 청결 그리고 영양공급을 도와주어서 모발이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올바른 두피관리행동 및 두피전문관리행동을 행하기 위하여 두피와 모발의 생리적 또는 병리적 원인을 파악하여 그것에 맞는 방법이나 제품을 선택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27].

3. 연구 방법

3.1 연구대상, 연구기간

본 연구를 위해 서울·경기 지역 여대생을 대상으로, 2020년 3월 18일에서 2020년 4월 7일 동안 실시하였으며, 대상자들에게 설문지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 무기명으로 자기기입식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총 544명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중 응답에 불성실하게 답한 10명을 제외한 나머지 534명의 설문내용으로 최종 통계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3.2 연구도구

3.2.1 일반적 사항

일반적 사항으로는 학년, 음주여부, 음주정도, 흡연 여부, 평균 수면시간, 건강상태, 두피건강상태를 조사하여 실시하였다.

3.2.2 라이프스타일 측정 도구

라이프스타일의 분류의 선행연구는 김경희(2002)[27]와 김광희(2017)[28], 그리고 주은령(2015)[1]에 사용된 측정항목을 연구대상과 목적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라이프스타일의 문항은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설문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를 이용하여 1점에서 5점으로 나누었으며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3.2.3 두피건강신념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두피건강신념 건강신념수준은 인지된 유익성, 인지된 장애성, 자기효능감을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문항은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설문 문항 척도는 5점 리커트를 이용하여 1점에서 5점으로 나누었다. 1점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리고 5점의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3.2.4 두피건강행동 측정 도구

두피건강행동의 문항은 김광희(2017)[29]와, 이경옥(2017)[30], 최지연(2017)[31]의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측정항목을 본 연구대상과 목적에 맞게 일부 수정 및 보완하여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두피관리행동은 두피 인식, 샴푸행동, 두피전문관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문항은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설문문

항 척도는 5점 리커트를 이용하여 1점에서 5점으로 나누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하였다

3.3 자료분석 및 통계처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통계로 처리 과정을 거쳤다. 연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라이프스타일, 두피건강신념, 두피관리행동에 대한 문항의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신뢰도는 Cronbach’s α의 계수로 판단하였다. 라이프스타일의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군집분석을 실시하였고, 또한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두피관리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했고, 다중범위 검정 Scheffe (Scheffe’s multiple range test)을 통해 유의한 차이를 검정하였다.

본 연구는 모두 유의수준 5%에서 실증 검증하였고, 통계처리는 프로그램 SPSSWIN 21.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4 연구도구의 타당도 분석

3.4.1 라이프스타일 요인분석

라이프스타일의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즉, 요인 1 고유값 2.747이고, 설명비 17.17%로 나타났으므로 유행추구형 요인을 잘 설명해주고 있으며, 요인 2는 고유값 2.278로, 설명비는 14.23%로 나타났기 때문에 사회지향형 요인을, 요인 3은 고유값 2.272, 설명비 14.20%로 나타나서 건강지향형 요인을 설명하며, 요인 4는 고유값 2.084, 설명비 13.02%로 나타나서 경제지향형 요인 설명을 해 주고 있다.

3.4.2 두피건강신념 요인분석

두피건강신념의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즉, 요인 1의 고유값은 3.404, 설명비 24.31%로 나타나서 인지된유익성의 요인을, 요인 2 고유값이 1.852이며, 설명비 13.22%로 나타나서 자기효능감 요인 설명하고 있으며, 요인 3은 고유값 1.850, 설명비는 13.21%로 나타나서 인지된 장애성의 요인 설명을 해 주고 있다.

Table 1. Lifestyle measurement tool

Division	Question	Factor			
		1	2	3	4
Trend pursuit tendency	I tend to identify the latest trends and put them into practice.	.838			
	I am very interested in information about appearance management such as TV, newspapers, and SNS.	.803			
	I often give advice to the people around me about fashion.	.800			
Social orientation tendency	I hear a lot of people around me saying that I am a fashionable person.	.670			
	I am an active participant in gatherings such as friends, class reunions, and work..		.843		
	I tend to play a central role in the meeting.		.790		
Health orientation tendency	I tend to make friends quickly with the people around me the first time I go there.		.759		
	Set a balanced diet and choose food with nutrition in mind.			.772	
	I tend to try to put health-related information into practice.’			.737	
	When buying a product, even if it is expensive, I tend to buy it, if it is good for my health.			.551	
Economic orientation tendency	Get regular health checkups.			.547	
	I tend to do activities that help contribute to society.			.470	
	When purchasing a product, I tend to make a decision after comparing it through various information networks.				.718
	When buying something I want, I tend to gather information in consultation with friends or relatives who know the details.				.705
	Spend your money under a solid budget.				.615
	When purchasing a product, I tend to consider the price more than other factors before making a decision.				.612
	Eigenvalues	2.747	2.278	2.272	2.084
	Dispersion rate	17.170	14.239	14.200	13.026
	Cumulative dispersion rate	17.170	31.409	45.609	58.635
	KMO = .784, Bartlett’s test result $\chi^2=2430.288$ (df=120, p=.000)				

Table 2. Scalp health care health belief measurement tool

Division	Question	Factor		
		1	2	3
Perceived Benefit	.Getting scalp care from a professional will help improve the condition of your scalp.	.814		
	Scalp care will solve your scalp problems	.800		
	Scalp massage promotes blood circulation and promotes scalp health.	.774		
	If you take care of your scalp, the condition of your scalp will be better than it is now	.763		
	Even if you take care of the scalp, the condition of the scalp does not seem to improve	.573		
	.Taking care of your scalp can help relieve stress.	.526		
Self-efficacy	I can control consumption patterns for scalp care.		.805	
	I can regularly use a hairdresser or a scalp care professional for scalp care.		.773	
	I can purchase and use scalp care products for scalp care.		.556	
	I can fix the lifestyle habits that damage my scalp care.		.433	
Perceived Disability	It is difficult to go to a beauty salon or a professional scalp care salon because it is too far away.			.791
	I don't have time to take care of my scalp.			.772
	Scalp care is too expensive.			.482
	The sanitary condition of the facilities and equipment of the hairdressing salon or scalp care salon will not be clean.			.406
Eigenvalues		3.404	1.852	1.850
Dispersion rate		24.315	13.226	13.214
Cumulative dispersion rate		24.315	37.542	50.755
KMO = .724, Bartlett's test result $\chi^2=1858.184$ (df=91, p=.000)				

3.4.3 두피건강행동 요인분석

두피관리행동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즉, 요인 1은 고유값 2.706이고, 설명비 27.05%로 나타나서 전문관리 요인을 나타내고, 요인 2는 고유값 1.786 그리고 설명비가 17.85%로 나타나서 샴푸행동 요인을 설명하고 있으며, 요인 3은 고유값 1.555, 설명비 15.55%로 나타나서 두피인식 요인설명을 해 주고 있다.

Table 3. Scalp care behavior measurement

Division	Question	Factor		
		1	2	3
Scalp professional care	regularly take care of my scalp at least twice a month at a beauty salon, a specialized scalp care shop, or by myself.	.912		
	I regularly perform scalp scaling at a beauty salon, a scalp care shop, or myself at least twice a month.	.907		
	I regularly use a scalp nourishing agent at a beauty salon, a scalp care specialty shop, or by myself at least once a month.	.817		
Shampoo actions	When shampooing, I rinse thoroughly with water so that no foam remains.		.631	
	When I use conditioner, conditioner, or treatment, I apply it only to my hair and not to my scalp.		.619	
	When I dry my hair after shampooing, I completely dry my scalp first and then dry my hair.		.617	
	When I shampoo, I use the surface area of my fingers to rub the scalp without scratching the scalp with my nails.		.562	
Scalp recognition	When I usually brush (comb), I brush (comb) from the tip of my hair to the scalp.		.501	
	I know exactly about my scalp condition (dry, oily, combination, sensitive, etc.).			.886
	I use a shampoo suitable for my scalp condition (dry, oily, combination, sensitive, etc.).			.793
Eigenvalues		2.706	1.786	1.555
Dispersion rate		27.058	17.859	15.552
Cumulative dispersion rate		27.058	44.917	60.469
KMO = .688, Bartlett's test result $\chi^2=1655.423$ (df=45,p=.000)				

3.5 연구도구의 신뢰도 검증

본 연구에 측정도구로 사용된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신뢰성은 측정항목의 여러 계수들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Cronbach's α 계수로서 신뢰성을 검증하였고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Reliability verification of each area

Division	number of questions	Cronbach's α
Lifestyle	Health orientation tendency	5 .634
	Trend pursuit tendency	4 .817
	Economic orientation tendency	4 .642
	Social orientation tendency	3 .803
	Perceived Benefit	6 .791
Scalp health care health belief level	Perceived Disability	4 .541
	Self-efficacy	4 .581
Scalp care behavior	Scalp recognition	2 .719
	Shampoo actions	5 .503
	Professional care	3 .895
Subtotal	Scalp professional care	10 .650

4. 연구 결과

4.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의 결과는 Table 5와 같다. 학년에서 '4학년' 30.9%, '1학년' 27.1%, '3학년' 25.3%, '2학년' 16.6%로 나타났다. 흡연여부는 '아니오' 78.6%, 음주여부는 '예' 85.5%, 음주정도는 '월 1-3회' 44.4%, 평균 수면시간은 '7-8시간' 59.8%, 건강상태 '보통이다'가 46.1%이었고, 두피건강상태는 '보통이다'가 46.1%로 도출되었다.

Table 5.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person)

Division	Frequence	Percentage
Grade	1 Grade	137 27.1
	2 Grade	84 16.6
	3 Grade	128 25.3
	4 Grade	156 31.0
Smoking	Yes	108 21.4
	No	397 78.6
Degree of smoking	Less than 1 pack per	34 31.5
	1-3 packs per month	16 14.8
	4-6 packs per month	27 25.0
	7-9packs per month	17 15.7
	More than 10 packs per month	14 13.0

Drinking	Yes	432 85.5
	No	73 14.5
Degree of drinking	Less than once a month	103 23.9
	1-3 times a month	192 44.4
	4-6 times a month	78 18.1
	7-9 times a month	36 8.3
	More than 10 times a month	23 5.3
Average sleep time	4 hours or less	8 1.6
	5-6 hours	131 25.9
	7-8 hours	302 59.8
	More than 9 hours	64 12.7
Health status	Very bad	6 1.2
	Relatively bad	53 10.5
	It's average	233 46.1
	Relatively healthy	198 39.2
Scalp health condition	Very Healthy	15 3.0
	Very bad	8 1.6
	Relatively bad	95 18.8
	It's average	233 46.1
	Relatively healthy	150 29.7
	Very Healthy	19 3.8
Total		505 100.0

4.2 라이프스타일의 군집분석

라이프스타일 결과는 Table 6과 같다. '경제지향형 (M=3.51)', '사회지향형(M=3.28)', '유행추구형(M=3.01)' 그리고 '건강지향형(M=2.82)'의 순으로 높았다.

Table 6. The kind of lifestyle

Division	Average	Standard Deviation
Health orientation tendency	2.82	±.66
Trend pursuit tendency	3.01	±.84
Lifestyle Economic orientation tendency	3.51	±.72
Social orientation tendency	3.28	±.89

비계층적 군집화의 K-평균 군집화(K-means clustering)방식의 군집분석을 Table 7과 같이 분류하였다. 그 결과로서 군집1에서는 유행추구형이 높게 도출된 그룹이기 때문에 유행추구성향으로 제시하였고, 군집2는 경제지향형이 높은 그룹으로 경제지향성향으로 제시하였으며, 군집3은 사회지향형이 높은 그룹은 사회지향성향으로 명명하여 제시하였다.

Table 7. Custer of lifestyles cluster of lifestyles

Division	Custer			F	p
	1	2	3		
Health orientation tendency	2.89	2.34	3.06	53.252***	.000
Trend pursuit tendency	3.40	1.99	3.21	200.370***	.000
Economic orientation tendency	3.34	3.13	3.99	79.860***	.000
Social orientation tendency	3.15	2.34	4.08	304.605***	.000

*** p<.001

본 연구의 K-평균 군집화 방식의 결과에서 각 집단 빈도, 라이프스타일 요인과의 유의한 차이를 고려해서 Table 8과 같이 3개의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최종적으로 제시된 3개의 라이프스타일의 군집유형의 빈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행추구형(N=217), 경제지향형(N=116), 사회지향형(N=172)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Table 8. Cluster of lifestyles (N=person)

Division	Frequence	Percentage
Trend pursuit tendency	217	43.0
Economic orientation tendency	116	23.0
Social orientation tendency	172	34.0
Total	505	100.0

4.3 두피건강관리 건강신념수준

두피건강관리의 건강신념수준 결과는 Table 9와 같다. 두피건강관리 건강신념수준의 전체의 평균은 3.43 이었고, 세부적으로는 '인지된 유익성(M=4.19)'과 '인지된 장애성(M=3.24)' 그리고 '자기효능감(M=2.95)' 순으로 평균이 높았다.

Table 9. Scalp health care health belief level

Division	Average	Standard Deviation
Scalp health care Health belief level	3.43	±.38
Perceived Benefit	4.19	±.56
Perceived Disability	3.24	±.67
Self-efficacy	2.95	±.68

4.4 두피관리행동

두피관리행동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전체평균의 두피관리행동의 평균은 3.03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샴푸행동(M=3.89)'과 '두피인식(M=2.97)' 그리고 '전문관리(M=1.64)' 순으로 높았다.

Table 10. Scalp care behavior

Division	Average	Standard Deviation
Scalp care behavior	3.03	±.55
Scalp recognition	2.97	±1.01
Shampoo actions	3.89	±.67
Professional care	1.64	±.94

4.5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두피건강관리 건강신념 차이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두피건강관리 건강신념수준 차이의 결과는 Table 11과 같다. 두피건강관리의 건강신념수준에서 인지된 유익성과 인지된 장애성 그리고 자기효능감은 모두 유의미하였다. 두피건강관리 건강신념수준은 사회지향성향(M=3.51)이 두피건강관리 건강신념수준이 가장 높았고,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인지된 유익성이(F=8.645, p<.001)로 가장 높았고, 인지된 장애성은(F=3.147, p<.05), 그리고 자기효능감에 서(F=31.333, p<.001)로 높게 나타났다.

Table 11. Differences in scalp health care health belief level according to lifestyle (N=person)

Division	Trend pursuit tendency ^a (N=217)		Economic orientation tendency ^b (N=116)		Social orientation tendency ^c (N=172)		F	p	Scheffe	
	M	± S.D.	M	± S.D.	M	± S.D.				
Scalp health care Health belief level	Perceived Benefit	4.13	±.55	4.10	±.57	4.33	±.53	8.645***	.000	c)a,b
	Perceived Disability	3.23	±.64	3.12	±.81	3.32	±.59	3.147*	.044	c,a) a,b
	Self-efficacy	3.04	±.59	2.53	±.71	3.10	±.67	31.333***	.000	c,a)b
Scalp care behavior	3.43	±.36	3.30	±.40	3.51	±.37	10.720***	.000	c,a)b	

* p<.05, *** p<.001, M=Mean, S.D.=Standard Deviation

Table 12. Differences in scalp care behavior according to lifestyle

(N=person)

Division	Trend pursuit tendency ^a (N=217)		Economic orientation tendency ^b (N=116)		Social orientation tendency ^c (N=172)		F	p	Scheffe	
	M	± S.D.	M	± S.D.	M	± S.D.				
Scalp care behavior	Scalp recognition	2.96	±.89	2.49	±.98	3.32	±1.03	25.766***	.000	c>a>b
	Shampoo actions	3.88	±.64	3.66	±.74	4.06	±.60	13.264***	.000	c>a>b
	Professional care	1.80	±1.01	1.31	±.62	1.66	±.97	10.798***	.000	a,c>b
Scalp care behavior		3.07	±.49	2.72	±.50	3.20	±.57	29.660***	.000	c,a>b

*** $p < .001$, M=Mean, S.D.=Standard Deviation

4.6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두피관리행동의 차이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두피관리행동의 차이 결과로는 Table 12와 같다. 두피관리행동요소의 두피인식과 샴푸행동, 전문관리 차이는 모두 유의미하였다. 본 연구의 두피관리행동의 결과에서는 사회지향성향(M=3.20)과, 유행추구성향(M=3.07) 그리고 경제지향성향(M=2.72) 순으로 두피관리 행동을 하였으며, 모든 라이프스타일의 유형에서 샴푸행동, 두피인식, 전문관리 순으로 두피관리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피인식(F=25.766, $p < .001$)과, 샴푸행동(F=13.264, $p < .001$)은 사회지향성향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경제지향성향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전문관리(F=10.798, $p < .001$)에서는 유행추구형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지역의 여대생 544명을 대상으로 라이프스타일을 유형별로 나누어 두피건강 건강신념 수준과 두피건강관리 행동의 차이를 분석하여 건강한 두피상태를 유지·증진시키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일반적 특성의 결과는 유행추구성향과 경제지향성향에서 4학년이, 사회지향성향에서는 1학년이 가장 높았으며, 두피건강상태는 유행추구성향, 경제지향성향, 사회지향성향 모두에서 '보통이다'가 가장 높았다. 주은령(2015)[1]은 그의 연구에서 낮은 연령일수록 사회지향성향이 많이 나타난다고 보고 하여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두 번째,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두피건강관리 건강신념수준은 사회지향성향에서 가장 높았고, 경제지향성향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사회지향성의 경우에는 두피

건강관리신념요소의 인지된 유익성, 인지된 장애성 그리고 자기효능감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제지향성향의 경우는, 두피건강관리신념의 인지된 유익성과 인지된 장애성, 그리고 자기효능감 모두 낮게 나타났다. 주은령(2014)[1]은 사회지향형이 인지된 유익성이 가장 높으며 경제지향형에서 인지된 장애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고 하였고, 최나홍(2012)[15]은 인지된 유익성과 자아효능감이 경제지향형에서 가장 낮다고 보고 하였으며, 김광희(2017)[29]는 라이프스타일의 건강신념 수준과 자기효능감이 경제지향성향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고 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확고히 지지해 주었다. 이러한 결과에서 사회적 교류에 긍정적인 사회지향형은 두피건강관리를 적극적으로 실천하지만 경제지향성향은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 투자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두피 건강관리에 소극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두피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제품의 효능에 대한 정보 및 경제성이 있는 두피건강관리정보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셋째,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두피관리행동 차이에 대한 결과는 사회지향성향과, 유행추구성향 그리고 경제지향성향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모든 라이프스타일 유형에서 샴푸행동, 두피인식, 전문관리 순으로 두피관리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지향성향의 두피관리행동의 경우 샴푸행동과 두피인식이 다른 라이프스타일 유형보다 높게 나타났고, 유행추구성향에서는 전문관리가 라이프스타일 유형 중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제지향성향은 두피인식, 샴푸행동, 전문관리의 모든 두피관리행동이 라이프스타일의 유형 중에 가장 낮게 나타났다. 김광희(2017)[29]는 그의 연구에서 라이프스타일의 두피, 모발 관리 실천행동에서 경제지향형, 사회지향형, 외모지향형의 모든 유형에서 샴푸행동, 두피인식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경제지향형에서 두피,

모발관리실천 행동이 가장 낮다고 보고하여서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 주었다.

사회지향형은 두피관리에 관심이 높고 두피건강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란 자신감과 효능감이 높아서 관련된 정보와 지식을 많이 습득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연령대가 가장 낮은 군집이므로 전문관리를 받는 두피관리행동을 보이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샴푸행동에서 차이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사회지향성향은 두피건강을 위한 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의지를 강화시켜서 두피관리행동에 대한 만족감을 통해 건강한 두피를 유지시킬 수 있는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유행추구성향은 외모에 관심이 높고, 타인의 시선이 중요하며 실행력이 높은 집단이기 때문에 트렌드에 맞는 전문가에 의한 두피관리의 실천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유행추구성향은 새로운 두피 모발관리와 같은 트렌디한 방법을 소개하고, 그것을 통한 의식 제고를 높여주어 전문적인 관리행동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것을 주지시켜서 두피관리실천행동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경제지향성향은 구매 시 신중하고 계획적인 소비행동을 하는 군집으로 정보에 대한 지식을 선호하는 편이 아니기에 가장 소극적인 행동을 하여서 두피관리행동에 대하여 직접적인 행동이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경제지향성향은 신중하고 계획적인 소비행동을 하므로 스스로 두피건강을 위한 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생활환경과 생활습관의 변화를 유도하여 두피관리행동을 증진시켜서 건강한 두피를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로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두피관리행동에 관련된 변수들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에서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여대생의 두피건강신념과 두피관리행동실천에 전반적으로 유의한 요인을 제시함에 따라 여대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두피건강행동에 초점을 둔 라이프스타일의 유형별 관련 정보와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라이프스타일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건강한 두피건강관리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초교육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후속연구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최근 두피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향후 두피관련 제품의 구매 행동, 전문두피관리실의 활용에서 다양한 성별과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둘째, 조사대상이 서울과 경기지역의 여대생을 중심으로 국한되어 있으므로, 일반화를 위해서는 조사 대상자의 범위를 넓힐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인 K-군집화 라이프스타일을 활용한 두피관리 제품개발이나 헤어샵 등의 마케팅 관련 연구를 시도한다면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REFERENCES

- [1] E. L. Ju. (2015). *A Study on the women's Skin Health Behavior depending on lifestyle based on Health Belief Model*. Doctor's Thesis.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 [2] C. H. Kim. (2016). *A Study on the The scalp · hair attitude to Management According to the Type of the Age of the women and Appearance Concern Degree and Management behavior*. Doctoral dissertation. Kyungsoo University, Busan.
- [3] B. S. Shin. (2019). Scalp & Hair Perception and Care Patterns of College Women Majoring in beauty and Other Fields. *J. kor. Soc .B&A*. 20(2), 107-117.
DOI : 10.18693/jksba.2019.20.2.107
- [4] S. S. Cho. (2000). The Association of some Diseases on Scalp Hair Trouble in Korean Female Colleg Students. *Moon Inok, J of the Korean society of Health statistics*, 25(2), 51-59.
- [5] J. M. Shi. (2007). *A Study of the College Students'Clothes Consumption Action in Accordance with Their LifeStyle*. Master's Thesis. Dong-A University. Busan.
- [6] J. M. Kim. (2020). *The effects of sociocultural pressure and health belief on scalp and hair health practice behavior*. Master's thesis. Asia LIFE University.
- [7] H. J. Byun (2010). *Factor analysis study related to scalp and hair condition of female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e of Sungshin university, Seoul.
- [8] Y. S. Kweon. (2012). *The Effect of College Women's Daily Habits on the Condition of Scalp*

- and Hair-Focused on the Difference between the Esthetics-Major and the Nonesthetics-Major.* Master's Thesis. Hansung University, Seoul.
- [9] G. O. Lee. (2017). *Analysis of the scalp and hair condition types of female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Kyungil University, Busan.
- [10] I. H. Lee. (2019). *Selection Attributes and Purchase Behavior for Cosmeceuticals by Adult Women's Lifestyle.*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Seoul.
- [11] M. H. Song.(2018). *The Influence of Life Style on the Preference of Single Women in Their 20s.* Master's Thesis. Sejong University, Seoul.
- [12] S. H. Kim. (2012). *The effects of lifestyle of middle and old-aged people on the health promotion behavior.* Doctoral dissertation. Daegu Haany University, Gyeongbuk.
- [13] H. K. Kim. (1999).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consumer by its value and lifestyle typology.* Master's Thesi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eoul.
- [14] Y. H. Lyu.(2008). *The analysis of the factors affecting the middle-aged men and women's purchase action of health promotion foods in the some areas of Gangwondo : centered on lifestyle.*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15] N. H. Choi. (2012). *Comparison of Health Belief Levels and Health Behaviors Practices according to Lifestyle by Adults Based on Health Belief Model.* Doctoral dissert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 [16] E. H. Kim. (2010). *The Research regarding the Relation of Searching for Information and Lifestyle.*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Seoul.
- [17] J. N. Lee. (2008). *The one person household unit proposal depends on lifestyle.*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Seoul.
- [18] Z. M. Yang. (2019). *A Comparative Study on the Chinese Women Consumers' Purchasing Behavior of Cosmetics by Lifestyle Types.* Doctoral dissertation. Silla University, Busan.
- [19] N. K. Janz & M. H. Becker. (1984). The Health Belief Model-A decade later. *Health Education Quarterly.* 11(1), 1-47.
DOI : 10.1177/109019818401100101
- [20] C. M. Lee. (2014). *The Effect of Health Belief and Self-Efficacy on Weight-Control Behavior and Intention to Obesity Control among Elementary Schoolers.*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Daegu.
- [21] J. W. Choi. (2018). *A Study on the Hair Dyeing Behavior of Adult Women Based on the Health Belief Model.* Doctoral dissertation. Dongduk University. Seoul.
- [22] G. H. Jang. (2017). *The effects of health belief of medical workers' on responsiveness and preventive behavior of hospital in hospital environment- mediated by health value.* Doctoral dissertation. Seoul Venture University, Seoul.
- [23] Y. J. Lee. (2013). *A Study of Effect of Health Belief on Health Information Processing and Health Behavior Intention.* Doctoral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Seoul.
- [24] J. K. Hong. (2017).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of Sociocultural Pressure Factor to Health Behavior Practice Based on a Health Beliefs Model in Female College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Sungshin University, Seoul.
- [25] A. Banduar.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DOI : 10.1037/0033-295X.84.2.191
- [26] S. H. Lee. (2020). *A study on the Scalp Management Behaviors of Female undergraduate students Based on the Health Belief Model by Lifestyle.* Master's Thesis. Sungkyul University, An- yang.
- [27] Y. Y. Park. (2019). *The effect of perception and planning action of scalp hair treatment on the actionbehavior of head spa therapy.* Doctoral dissertation. Konkuk University, Seoul.
- [28] K. H. Kim. (2002). *Comparison Of The Skin Care, Makeup Behavior, and Purchasing of cosmetics According To the Life Style of korean, Chines, Japanese Female University Students.* Master's Thesis. KyungHee University, Seoul.
- [29] K. H. Kim. (2017). *A study on the Scalp and Hair Management Behavior according to the lifestyle based on Health Belief Model and Trans the oretical Model.* Doctoral dissertation. Sungshin University, Seoul.
- [30] K. O. Lee. (2017). *Differences in Self-scalp Care Behavior by Perception of Scalp Type-Focusing on the Daegu-Gyeongbuk region.* Master's Thesis. Kyungil University, Gyeongbuk.
- [31] J. Y. Choi. (2017). *The Relationship between Health and Job Stress, and Treatment of Hair and*

Scalp. Master's Thesis. Seokyeong University, Seoul.

이 서 희(Soe-Hee Lee)

[정회원]



- 2020년 2월 : 성결대학교 미용교육 대학원(석사)
- 2021년 3월 ~ 현재 : 성결대학교 뷰티디자인 학부 강사
- 관심분야 : 헤어, 컬러링, 펌
- E-Mail : hair0311@naver.com

임 연 실(Yeon-Sil Lim)

[정회원]



- 2006년 8월 : 건국대학교 향장학 (석사)
- 2011년 2월 : 성신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미용건강학(박사)
- 2021년 3월 ~ 현재 : 성결대학교 뷰티디자인 학부 조교수

- 관심분야 : 피부미용, 아로마테라피
- E-Mail : cco528@sungkyul.ac.kr

전 해 정(Hae-Jung Chon)

[정회원]



- 1990년 8월 : 인제대학교 보건학과 (석사)
- 2014년 2월: 인제대학교 보건학과 (박사)
- 2014년 3월~ 현재 : 성결대학교뷰티디자인 학부 부교수

- 관심분야 : 피부미용, 공중위생학
- E-Mail : hjchons@hanmail.net